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두 여자의 비유

성경: 창 16:1–17:14, 갈 4:21–31

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두 언약, 곧 약속의 언약과 율법의 언약에 대한 비유이다 — 창 16:1–3, 갈 4:24.

A.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 언약은 신약인 은혜의 언약과 관련된다 — 갈 4:23–24, 창 12:7, 15:7–21.

1.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씨를 산출하도록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를 일해 넣고자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 창 15:4.
2.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합당한 아내로서, 이 은혜의 언약의 상징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산출했다.
3. 은혜의 약속에서 비롯된 산물인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이다 — 창 17:19, 21:12하.

B. 여종인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한다 — 갈 4:24–25.

1.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다.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위치가 첩의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창 16:1–3.
2. 하갈로 상징된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율법 아래 노예 노릇 하게 하고 속박받게 하여 율법의 노예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한다 — 갈 4:25, 5:1, 4.
3.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람이 율법과 협력하여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 창 16:4, 15–16, 갈 2:16, 4:23상.
4.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산출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에 따라 자신의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 창 17:18–19, 21:10, 갈 4:30.

C.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과 7절,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장 4절과 5절에서 주어졌고, 언약은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맺어졌다.

1.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약속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먼저 왔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져오실 의도가 없으셨고, 사람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실 의도도 없으셨다.
2.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 창 15:4.

D.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할례로 확증되었다.

1.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전능한 분이신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신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하신다.
2.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육체를 베어 내고, 그의 타고난 힘을 끝내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시어 그분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3.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벗는 것이며, 자아와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 골 2:11, 13상, 빌 3:3.
   a. 영적인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갈 5:24, 롬 8:13.
   b. 할례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쓰는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다. 할례의 의미는 육체에 대한 신뢰를 잘라 내는 것이다 — 빌 3:3.
4. 할례로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에 관한 것이다 — 창 17:2-8.
   a.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 — 갈 5:24, 6:14.
   b.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오시어 이삭을 산출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린다 — 창 18:10, 14, 21:1-3.

Ⅱ.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체험의 빛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고찰해야 한다.

A.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 바울은 하갈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의미하고, 사라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 갈 4:25-26.

B.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 곧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대표한다. 율법은 사람이 무언가를 산출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신이다 — 갈 3:26, 4:6.

C.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1. 이 언약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 갈 3:29.
   2. 이 언약은 신약과 동일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사실상 신약이었음을 의미한다 — 갈 3:8, 히 8:7-8.
      a.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연장이다 — 창 15:7-21.
      b.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산출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의 완전한 연장이다. 이 언약에 의해 산출된 아들들 중 첫째가 아브라함 자신이었다 — 갈 3:26, 4:6, 히 2:10.

D. 두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종류의 자녀들은 본성상 서로 다르다 — 갈 4:24, 28-31.
   1. 율법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다. 약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은 그 영을 따라 태어난다 — 갈 4:29.

2.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할 권리가 없지만,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권리가 있다 — 갈 4:30-31.
3.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스도와 생명 주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다 — 갈 6:18, 골 1:27, 고전 15:45하.
   a. 이 영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를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있는 놀라운 계시이다.
   b.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되는 과정 안에 머물면서,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의 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누려야 한다 — 갈 3:14.

E. 갈라디아서 4장은 믿는 이들의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이 사라로 상징되는 은혜의 새 언약임을 계시한다 — 갈 4:26.
1.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이 어머니는 은혜의 새 언약이다 — 히 8:7-13, 12:22-23.
   a. 새 언약은 우리를 자유가 있는 자녀들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이다 — 갈 4:31.
   b. 우리는 새 언약 아래 태어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이다 — 갈 4:26.
   c. 이 여자는 새 언약이자 우리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2.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는 언약이며, 언약은 성(城) 곧 우리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어머니로 말미암아 산출된 아들들은 어머니의 구성 요소들이며,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즉,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 목적지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 갈 1:3, 고전 8:6.
3. 새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다. 새 언약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교회는 하나이다 — 히 8:7-13, 12:22-23.
4.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성이다 — 히 11:10.
   a. 이 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확인되는데, 이 절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나아갔다고 말한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신약의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다.
   b.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것이다 — 계 21:1-2, 7.

© 2026 Living Stream Ministry